#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회)

## 제2편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상식

### 세 분의 주인공 출현 후 일인출(一人出)

차례
제 2편


ㅡ. 세 분의 주인공 출현 후 일인출(一人出)
1) 삼신일체일인출 ; 격암은비가
2) 삼위일체 ; 묵시록 3장 21절
3) 삼존불일체 〔이자삼점(伊字三點)〕


## ㅡ. 세 분의 주인공 출현 후 일인출(一人出)

「본 연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필자가 이 글을 승리신문에 연재한 후 독자로부터 조희성 구세주님이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인데 박태선 장로님도 감람나무이며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점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동시에 두 분이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의 전체를 다 읽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신문의 공간적인 제약상 그럴 수는 없으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따로 요약해서 설명하여 독자들의 의문을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본 연재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다시 찾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회복하는 과정이 박태선 장로님의 전도관 역사(歷史)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줄거리를 잡고 있다.

독자들은 박태선 장로님의 신앙역사를 단지 흥미위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역사에 숨겨 있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읽어야 한다.

### 1) 삼신일체 일인출(三神一體一人出); 격암 은비가

가짜 구세주가 여기저기서 출현하여 미혹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은 치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세주가 출현하시게끔 계획을 짜놓으셨다. 그 구체적이고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세주의 출현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의 출현이 필연적인 과제이다.

격암유록 은비가에는 삼진신중일인출(三眞神中一人出) 삼성일체일인출(三聖一體一人出) 즉 세분 하나님이 나오시어 한 분 하나님으로 출현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다. 한 분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분이 구세주이다.

一人鷄龍開國之臣 十人生產一男一女
일인계룡개국지신 십인생산일남일여

辰巳眞人 男女不辨牛牲在野
진사진인 남녀불변우성재야

非山非野仁富之間聖之出世
비산비야인부지간성지출세

- 無用出世智將
무용출세지장

"한 사람의 하늘나라를 개국하기 위하여 공을 이루는 신하가 와서 십인(十人) 즉 하늘사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진사의인으로 키운다. 남녀 모두 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인천과 부천사이에서 나타나신다." 한 분이 나타나서 일남일녀를 키운다는 예언이다. 역시 세 분의 의인 진사성인이 출현함을 말하고 있다.

### 2) 삼위일체 ; 묵시록 3장 21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스가랴 4:11)"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세 분의 감람나무 의인을 말하고 있는데 삼신(三神)으로 출현함을 말하고 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도 아버지보좌에 같이 앉게 하여주리라(묵 3:21)"라고 기록하여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오시어 일체를 이루어 완성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완성되시어 나오시는 분이 구세주이시다.

"기록하였으되 처음 사람 아담은 산 영혼이 되었다 하였으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신이 되었나니(고전15:45)"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처음 사람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져 마귀 사람이 된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출현하신 구세주를 말한다.

세 분 하나님은 '하나님 아담 해와'인데 에덴에서 실패한 아담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을 다시 찾으시어 승리한 하나님으로 출현하신다. 잃었던 아담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을 차례로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찾는 과정이 구세주 출현 과정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아담하나님에게로 합일되어 일인출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구세주이시다.

### 3) 삼존불일체〔이자삼점(伊字三點)〕

불경에는 더욱 자세히 위의 성경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我今當令一切衆生及我子四部之衆
아금당영일체중생급아자사부지중

悉皆安住秘密藏中 我亦復當安住是
실개안주비밀장중 아역복당안주시

中入於涅槃何等名爲秘密之藏
중입어열반아등명위비밀지장

猶如伊字三點若 則不成伊縱亦不成如
유여이자삼점약병즉불성이종역불성여

摩醯首羅面上三目 乃得成伊三點若別
마혜수라면상삼목 내득성이삼점약별

亦不得成我亦如是解脫之法如來之身
역불득성아역여시 해탈지법여래 지신

摩訶般若 三法各異亦非涅槃我今
마하반야 삼법각이역비열반아금

如是安住三法爲衆生故名入涅槃
여시안주삼법위중생고명입열반

〈대반열반경2권 수명품1-2〉

**해설** : 내가 이제 마땅히 모든 중생과 나의 아들 4부대중을 모두 비밀장 가운데 안주케 하리라. 나 또한 마땅히 그 비밀장 가운데 들어가 안주하여 열반에 들어가리라. 무엇을 이름하여 비밀장이라고 하는가? 비유하면 이자삼점(伊字三點)과 같다. 만약 셋이 함께 있으면 이(伊)자를 이루지 못한다. 비록 이루지 못했더라도 마혜수라왕의 얼굴에 눈이 셋이 있는 것처럼 이자삼점(伊字三點)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만약 세 분의 몸으로 세상에 각각 나와서 동시에 역사하게 되면 이자삼점을 이루지 못한다. 나 역시 이와 같아서 해탈지법, 여래의 몸, 마하반야는 세 법이 각각 나뉘어져 있음으로 열반이 아닌 것이다. 나도 이제 이 삼법에 안주하리라. 다만 중생을 위해 거짓으로 열반에 들었다 말하는 것이다.

위에 불경내용은 다음같이 대별할 수 있다.

1]. 석가여래는 4부대중과 석가 자신이 비밀장에 들어가 안주케 한다고 했다.

2]. 이 비밀장은 이자삼점(伊字三點)이라고 했다.

3]. 셋이 함께 있으면 이(伊)자를 이루지 못한다.

4]. 마혜수라왕의 안면에 눈이 셋 있는 것처럼 이자삼점을 이룬다.

5]. 세 분이 동시에 각각 나와서 동시에 움직이면 이자삼점을 못 이룬다.

6]. 세 법이 각기 나뉘어져 있으면 열반이 아니다.

**해설**: 석가여래는 자신과 모든 중생들을 비밀장에 안주케 하겠다고 했는데 이 비밀장은 이자삼점이라고 하였다. 이 이자삼점은 세 분의 부처가 한 몸을 이루고 나온 생미륵불을 말한다. 세 부처가 함께 있으면 이자삼점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마혜수라왕의 얼굴에 눈이 셋이 있는 것 같이 세 분의 부처가 한 몸에 합일되어 일인출 되어야 이자삼점을 이룬 생미륵불이 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세 분이 동시에 나와서 동시에 움직여도 이자삼점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고로 해탈지법도 여래의 몸도 마하반야도 세 법(三法)이 각기 나뉘어져 있음으로 열반이 아닌 것이다. 세 분은 차례로 출현하여 차례로 합일되시면서 삼신일체일인출(三神一體一人出) 되어야 생미륵불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 이자삼점(伊字三點)의 해설

중국 하남성 노씨현(盧氏縣)에는 웅이산(熊耳山)이라는 산이 있다. 이 산에서 물이 흘러 이양강(伊陽江)을 이룬 후에 낙양강(洛陽江)을 거쳐 낙수(落水)로 흘러든다. 여기에 이양강, 낙양강, 낙수가 삼점에 해당된다.

이 삼점이 곧 세 분의 부처님인 하나님을 말한다. 첫번째 스승에 의해서 두번째 부처가 나오고 두번째 스승에 의해서 세번째 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이 세번째 출현하신 부처님에게로 먼저 나오신 스승격인 부처님이 합일되시어 일인출 되시니 이분이 생미륵불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마혜수라왕의 얼굴에 눈이 셋이 있는 것처럼 한분에게 세 분의 부처님이 합일되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절에 가면 ( ∴ )표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자삼점(伊字三點)을 표시한 것이다.

다음의 증일아함경을 보면 이 삼법(三法)이 되는 세분 부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有三人世人所應供養 云何爲三 如來至
유삼인세인소응공양 운하위삼여래지

眞正等覺 不伏者伏未得解脫者
진정등각 불복자복미득해탈자

令得解脫最尊第一天人中最高 云何爲
령득해탈최존제일 천인중최고 운하위

三一者女人覆則妙露則不妙
삼일자여인복즉묘로즉불묘

〈增一阿含經 12卷 三供養品 22〉

**해설** : 세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높이 받들어 공양하는 바이다. 어찌하여 셋이 되는가? 여래의 최상의 대각을 이루심이다. 조복 받지 못하던 자에게 조복을 받고 해탈을 얻지 못한 자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한다. 가장 존귀하며 제일이시며 하늘과 사람 가운데 최고로 높다. 무엇이 셋이 되느냐? 한 분은 여인이 된다. 가린 즉 묘하고 드러낸 즉 묘하지 않다.

이 불경은 위에서 밝힌 이자삼점(伊字三點)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삼법(三法)의 주인공인 세 분의 부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다. 이 세 분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이 높이 받들어 공양하는 분들로서 이 세 분의 부처님은 하늘과 사람 가운데 최고로 높은 분들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놀라운 내용은 세 분 부처님 중에서 한 분은 여인으로 나오신다고 적은 것이다. 이분들은 조복을 받지 못하던 자에게 조복을 받게 하며 해탈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해탈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불경의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자삼점(伊字三點)의 원리 즉 삼성일체일인출(三聖一體一人出)의 원리로 출현하시는 미륵부처 즉 구세주의 출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생미륵불이며 구세주의 존재를 찾으려면 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 분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가 되는 것이다. 세 분의 주인공이 출현하시는데 그 세 분의 주인공 중에서 한 분은 여인으로 출현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확한 공식 속에서 삼신일체(三神一體)로 이루시어 나오신 분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이자삼점(伊字三點)의 귀중성을 항상 잊지 말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수도승들에게 벽에 써 붙여 놓고 염불처럼 외우게 한 문구가 있다. 그 문구를 소개한다.

行住坐臥夢中一念不失伊字(행주좌와 몽중일념불실이자) "행하거나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꿈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이자(伊字)를 잊지마라" 이 말은 이자삼점 즉 삼신일체로 출현하실 생미륵불을 항상 잊지를 말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이다.*

---

도덕경 해설

# 孔德之容 惟道是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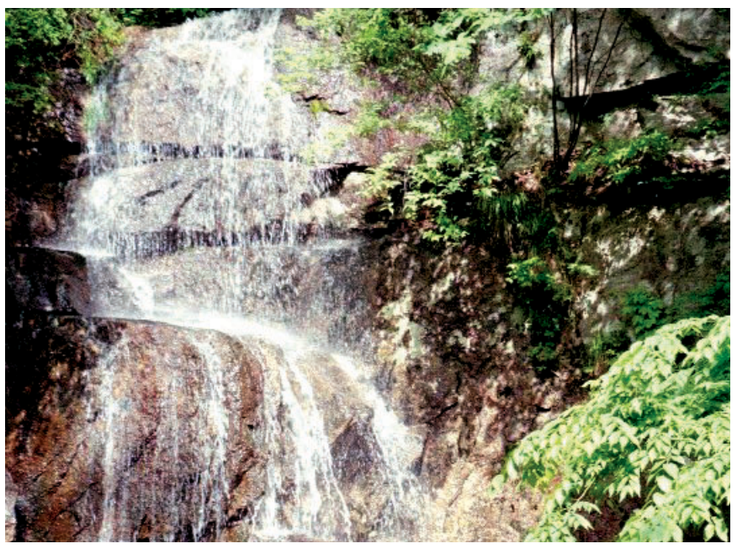
## 공덕지용 유도시종

### 21장 해설

지금까지 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았다면, 도가 무엇이며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도와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감을 잡았으리라 본다. 만약 아직도 도가 무슨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면 여태까지 헛배운 것이다.

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다. 도를 품은 사람은 하늘에서 살고, 모르는 사람은 땅에서 산다. 하늘은 하늘의 이치를 담고, 땅은 땅의 이치를 담고 있다. 하늘의 이치는 순수본성에 의한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삶이 있다면, 땅의 이치는 욕심과 감정과 물질의 집착에 의한 구속과 억압과 유한한 생이 있을 따름이다.

우리가 노자의 도에서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는 것쯤은 독자 여러분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도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도를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실체가 없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으나, 도를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의 하나하나가 도와 함께 호흡하며 생활 전체가 된다. 일반 사람들이 아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도는 신기루와 환상에 가까운 것으로 모호하여 말장난과 지식자랑으로 갖춰진 백해무익한 것으로 삶에 아무런 변화와 기대를 가져올 수 없다. 도덕경을 읽는 독자들이 진심으로 도를 깨치고자 한다면, 먼저 추상적이고 환상에 가까운 관념적인 도의 허구를 걷어버리고, 자신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



가는 분명한 도의 실체를 손에 넣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의 불분명했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버리고 눈부신 태양과 같은 도의 본체를 확인하고 밝고 환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孔德之容 惟道是從(공덕지용 유도시종): 크고 깊은 덕의 모습은 오로지 도를 바르게 따르는 데 있다**

공덕이란 순수본성(생명의 본질)에 따른 삶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으로써 이는 오로지 도를 좇아 살아가는 길 뿐이다.

**道之爲物 惟恍惟惚(도지위물 유황유홀): 도로부터 물질(만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직 어슴푸레 모호하게 여길 뿐으로**

도는 생명의 본질이며 만물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어슴푸레하고 모호하게 알고 있다.

**惚兮恍兮 其中有象(홀혜황혜 기중유상): 어슴푸레하고 모호한 그 가운데 형상이 있다**

**恍兮惚兮 其中有物(황혜홀혜 기중유물): 어슴푸레하고 모호한 그 가운데 물질이 있다**

**窈兮冥兮 其中有精(요혜명혜 기중유정): 고요하고 그윽한 그 가운데 순수본성(생명의 바탕)이 있다**

모든 물질과 형상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도(생명의 본체)가 있다는 것이다.

**其精甚眞 其中有信(기정심진 기중유신): 그 순수본성(생명의 본체)이 바로 참된 진리(道)이며 그 안에서만 올바른 믿음이 있다.**

이 우주 배후에 감춰진 생명의 실체와 인간과 삼라만상 속에 있는 생명의 실체는 동일한 것이며, 이것은 순수본성에 연원한 것으로 여기에만 올바른 믿음이 있을 수 있다.

**自古及今 其名不去 以閱衆甫(자고급금 기명불거 이열중보): 자고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생명의 본체로서 우주만물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생명의 본체가 계속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이 생명의 본체로 유지 전승되는 것이다.

**吾何以知衆甫之狀哉 以此(오하이지중보지상재 이차): 내가 어떻게 생명의 본체가 그러한 상태인지 알겠소만 이 도의 지켜보는 작용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다.**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이치를 알고 깨달을 수 있지, 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이치를 눈뜨고 지켜봐도 알 수가 없는 법이다.

도(생명의 본체)가 없다면 사람은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

도 속에서 살면서 도의 은혜를 모르니 무도한 자는 천수(天壽)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김주호 기자

---

##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이라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당신이 죽어서라도 살리려는 것이라네

주님의 크신 사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려는 것이라네
사망의 고통 아래 있는 우리를
당신이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끝까지 살리려는 것이라네

주님의 크신 사랑은
철부지 우리들을 눈물로써
키우신 것이라네
아무리 가르쳐 주고 깨우쳐 줘도
못 알아듣는 우리를
꾸중 대신 피눈물로 호소하신
회초리라네

주님의 크신 사랑은
당신이 당하는 고통 숨겨 알지 못하게
감추신 것이라네
사람 몸을 입은 것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도 안 아픈 척 우리 죄
담당하신 의연함이라네

주님의 크고도 크신 사랑은
가지 않아도 되는 보광(普光)의 길
가신 것이라네
당신을 던져서라도 자식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고귀하심이라네

구세주란
당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살리는
사명자란 것을
당신이 보광하심으로 알게 되는
이 철없는 무지(無智)를
부디 깨우쳐 주소서
크신 사랑 깨닫게 하소서

죽어도 아니 죽은 것임을
보광(普光)으로 보여주신
권능의 주님!
죽어야 아니 죽는 것을
보광(普光)으로 알려주신 희생의 주님!

당신이 가신 길을 누가 따를
수 있으리오만
오직 맡기고 또 맡김으로 갈 수
있다 하였사오니
맡기고 맡기게 하여 주소서
맡긴 것을 또 맡기고 맡기게
하여 주소서

보광 10년을 생각하며 - 김종만 작시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